

에서는 잘난 아들이었다. 힘이 중요한 유목사회에서 에서는 믿음직한 아들이었다. 아버지 이삭은 우물과 농경지를 두고 여러 차례 분쟁을 경험했다. 늘 양보하며 자리를 피해준 이삭이 강한 아들 에서를 편애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 창 25:27-28

상황이 급격히 변한 것은 야곱이 축복을 가로챈 이후였다. 속아서 주어진 축복이었지만 무효가 되지는 않았다. 리브가는 계속해서 야곱을 두둔했고 피신시킬 계획까지 직접 세웠다. 이제는 야곱의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아버지 이삭은 이 상황을 말 없이 지켜보고만 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헛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헛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이까 / 창 27:46

리브가는 에서의 결혼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이방족속 헛 여자를, 그것도 둘이나. 리브가의 관심은 야곱의 결혼에 집중되어 있었다. 혹시라도 집을 떠난 야곱이 에서 처럼 이방 여자와 결혼을 할까 염려하고 있었다. 이제는 이삭도 야곱을 걱정하고 있었다. 이미 선언한 축복도 모자라 또 축복하고 당부하며 (네 형 에서처럼) 가나안 여자와 결혼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뜻을 전달한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진, 언약의 핵심을 다시 한번 야곱에게 선언한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었다. 언약의 핵심이자 장자의 명분이 가진 절정이었다. 이 모든 장면을 에서는 지켜볼 수 밖에 없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아람으로 갔으며 / 창 28:6-7

분노와 상실감에 사로잡혀 있을 때 에서는 야곱을 죽일 작정이었다. 그러나 야곱을 피신시키려는 부모의 대화를 보고, 들은 에서는 동생을 죽일 마음을 더는 갖지 않았다. 그 대신 나름대로 ‘자기 노력’을 하기 시작했다. 결혼에 대한 부모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하게 되었다. 에서는 또 다른 아내를 맞이했다. 이번에는 이스마엘의 딸이었다. 그러나 이스마엘의 딸이라고 해서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들지는 않았을 것이다. 같은 아브라함의 자식이기는 하지만 이미 아브라함 생전에 원만하지도, 부드럽지도 못한 분리가 이루어졌으니까.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웃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 창 28:8-9

잘난 능력으로 마음대로 살았다. 장자의 명분에 포함된 언약에 대한 의무도 생각지 않고 마음대로 살았다. 이방여인과 결혼도 했다. 힘도, 능력도 있었다. 장자의 명분을 가벼이 여긴 것은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 정말로 자기 힘으로만 살아야 하는 때가 되었다. 그가 가벼이 여기던 하나님의 은혜, 언약 없이 자기 힘으로.